

# “막걸리 시장 공략, 무기는 살균 탁주”



창립 61돌 맞은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 '100년 기업' 목표 제시

보해양조가 창립 61주년을 맞아 올 상반기 막걸리(살균탁주) 시장 진출 등 100년 기업을 향한 목표를 밝혔다.

보해는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목포 본사에서 임건우 회장 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갖고 100년 기업을 향한 목표를 발표했다.

임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보해는 지난 60년 동안 거친 파도를 헤치며 새로운 주류시장을 개척해 왔다”며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우리 전통주의 개발과 국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100년 기업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해는 올 상반기 중

살균 탁주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탁주제조 면허를 얻은 보해는 그동안 막걸리 시장 진출에 대해 검토를 해오다 해외수출 등을 고려한 결과 장기간 저장성이 가능

### 상반기 신제품 출시 선언

### “글로벌 주류기업 도약”

한 살균 탁주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해는 이러한 결과에 주목, 전통주 제조를 통해 축적한 기술을 접목해 고품질 살균탁주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보해는 1970년대까지 20여년 간 막걸리를 생산했던 경험과 최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신제품을 선보여 막걸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선보일 살균탁주를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에 수출해 글로벌 주류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 회장은 “세계적 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서비스, 기업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과 소통을 통해 시장변화를 선도하며 실천하는 기업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보해는 창립 61주년을 맞아 목포 본사와 각 지점, 공장별로 창립 기념식을 개최하고 업무유공사원, 장기근속사원 등 총 63명에게 표창장을 주고 장기근속사원에게는 금메달과 금반지 등을 전달했다.

한편 보해는 지난 1950년 목포에서 창립, 국내 최초로 무사카린 소주, 프리미엄 소주 등을 선보이며 소주의 품질경쟁 시대를 열었으며 ‘옛 새주’는 광주·전남지역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매추순’과 ‘보해 복분자주’는 국내 매실주와 복분자주 부문에서 각각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민간 자격증 허위·과장광고 믿지마세요

### 공정위 17개 업체 적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속여 민간 자격증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각종 민간자격증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온 17개 단체와 업체를 적발, 지난 11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단체 및 업체는 ▲시정 명령 및 범위 반 사실 공표 명령 10개 ▲시정명령 1개 ▲경고 6개 등이다.

대한스피치엔터테인먼트(스피치지도사),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 등 2개 업체는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되

는 것처럼 ‘100% 취업보장’, ‘우수 졸업생 100% 외부 출강 보장’이라고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자격증 취득 전에 등록 및 공인 여부를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격이 등록됐다고 국가에서 공인력 등을 인정한 것이 아닌 민간자격등록자격을 국가 공인자격의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필뉴스



### ‘보로로 우표’ 나왔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대표 3D애니메이션 캐릭터 ‘보로로’가 우표로 발행돼 22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네 차례 발행하는 한국 캐릭터 우표 시리즈의 올해 첫 작품으로 ‘보로로’를 보로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발행량은 10종, 각 40만장(총 400만장)으로 보로로와 친구를 10명이 각각 스티커우표로 디자인돼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하락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분석한 ‘2011년 1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광주·전남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본

체외, 금액 기준)은 0.26%로 전월(0.46%)보다 0.20%포인트 하락했다.

부도금액(개인 제외)은 85억7000만원(143억7000만원)보다 58억7000만원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억2000만원) 및 서비스업(-13억

4000만원) 등 모든 산업에서 줄어 들었다. 부도업체수는 4개 제조업(-3)과 건설업(-1), 기타(-1) 등이 줄었지만 서비스업(+1)이 늘어 전체적으로 전달(8개)보다 4개 감소했다.

신설법인 수는 338개로 전달보다 9개 증가했고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비율은 112.7배로 전달 47.0배보다 크게 상승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대형 유통점 1월 매출 “설·강추위 덕 봤다”

### 작년 대비 마트 21.4% 백화점 24% 증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1월 매출이 설 연휴와 강추위 효과 때문에 크게 늘었다.

지식경제부는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각 3곳의 1월 매출을 집계한 결과,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1.4%, 2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설 연휴가 작년에는 2월13~15일이었지만 올해는 2월2~4일로 1월에 가까워 식품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식품매출 증가율은 무려

30.6%, 69.1%였다.

또한 전국 월평균 영하 4.4℃의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옷이 잘 팔려 나간 것도 매출 증가에 한몫했다.

세부 상품군별로 보면 대형마트에서는 식품 외에 가정·생활(17.9%), 의류(17.6%), 잡화(15.7%) 등이 증가한 반면 가전·문화는 2.0% 감소했다.

백화점에서는 식품을 선두로 명품(31.8%), 잡화(18.9%), 아동스포츠(16.8%), 남성류(15.9%) 등 모든 부문의 매출이 두루 증가했다.

지경부는 명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시즌오프 및 신상품 입고로 고액 구매고객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잡화의 경우 한방화장품 등 선물세트 매출은 호조를 보였으나, 금과 다이아몬드 시세 상승에 따라 준보석류 매출 신장세는 꺾였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매건수의 경우 대형마트는 7.7%, 백화점은 10.2% 증가했고 1인당 구매단가는 12.8%, 12.5% 올랐다.

1인당 구매단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5만2277원, 8만4913원으로 집계돼 백화점이 62.4% 높았다.

연필뉴스



## 배추·대파값 냉해로 폭등

배추와 대파 가격이 냉해 때문에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농협유통은 17일 하나클럽 양재점을 기준으로 배추는 한 포기에 전주 대비 700원(16.9%) 오른 4850원에 판매된다고 밝혔다.

대파도 한 단에 지난해보다 460원(24.3%) 오른 2350원에, 무 가격은 90원(6.0%) 높아졌다.

한우 갈비(1+등급 기준 6850원/100g)와 등심(8900원/100g)은 지난해와 가격이 같았고 양지만 100g에 700원(13.5%) 올라 5900원을 기록했다.

연필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는 냉이, 달래, 숙 등 향긋한 봄내음을 풍기는 봄나물 판매가 한창이다. 봄나물은 겨울철 잃었던 입맛을 돋우고 영양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고물가 걱정 뚝! 가격 확 내리고 더 드립니다”

### 대형마트·SSM·인터넷몰 할인경쟁 가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SSM), 인터넷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육류 및 생필품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S슈퍼마켓은 18~20일 한우 등심과 돼지고기 삼겹살을 50% 할인 판매한다. GS슈퍼마켓은 한 달 간 준비해 한우 1000마리와 돼지 1만 마리를 확보하고 한우 등심은 7900원에서 3900원으로, 삼겹살은 2800원에서 1440원으로 값을 낮췄다.

조남욱 GS리테일 축산팀장은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

를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물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한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 좋은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도 23일까지 한우, 배추, 가지귀 등 주요 생필품을 할인 판매한다.

한우는 평소 행사 때보다 2배가량 많은 물량인 50t을 마련해 1등급 한우 등심, 채끝, 불고기 등을 최대 40%까지 싸게 선보인다.

또 해남산 울동 배추를 20만 포기 준비해 하루 250명(1명당 3포기) 한정으로 시세보다 30% 가량

싼 2500원에 팔고 진도 대파도 시세보다 27% 저렴한 2900원(1단)에 내놓는다.

“하GIS 골드 기저귀”를 롯데카드 결제하면 전점에서 1만박스 한정으로 상품권 1만원을 준다.

롯데슈퍼 역시 16일부터 계란과 한우 등심을 시세의 절반 수준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며 20일까지 라면, 우유, 가지귀 등 일부 생필품을 1개 구입하면 같은 제품을 얻어주는 ‘1+1’ 행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몰인 G마켓도 내달 27일까지 기획전 ‘더 큰 세일’을 진행해 가지귀, 분유,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매일 14품목씩 선정해 시중가보다 최대 40% 싸게 판매한다. /연필뉴스

## 웨딩전문 1급관광호텔

모든객실 천연대리석 마감재 사용으로 최고의 품사

**Arts Hall Hotel & Wedding**  
관광호텔에 예술의전당  
Business Tourist Hotel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웨딩특전**

**1급관광호텔 예술의전당에서 예식진행시 11가지 특별함**

1. 광주의 중심 상무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와 접근성
2. 예식장예식보다 실제 더 많은 하객방문으로 인한 축의금 창출효과
3.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주차환경
4. 1시간 간격의 여유로운 예식시간
5. 2시간 단독 독립연회장 사용
6. 차별화된 호텔식 즉석 뷔페
7. 혼주, 가족 전용 VIP룸 이용
8. 스위트룸 무료제공과 히니룬 톨서비스 (고급와인, 과일안주, 축하케이크)
9. 토털웨딩계약시 추가혜택 (대형액자포함 가족사진촬영권, 꽃장식, 헬퍼비와 페백수모비서비스)
10. 타 예식장 식비대비 2~3천원차이의 합리적 식사비 (3만원-3,4,5,10,11,12월 / 2만8천원-1,2,6,9월 / 2만6천원-7,8월)
11. 이브닝식 빅이벤트(꽃장식, 예도, 현악3중주 서비스)

**이브닝 웨딩시 200만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 식사비10%할인 (식사인원 400명 이상시 추가 5%할인혜택)
- 35만원상당의 현악3중주
- 25만원상당의 예도 서비스
- 20만원 상당의 생화꽃장식 서비스
- 40만원 상당의 스위트룸제공과 톨서비스
- 하객 400명이상 보장시 지방 왕복 관광버스 1대 제공

**1F 아트홀 (150석)**  
**5F 벨라지오홀 (180석)**

**객실특전**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30가지)

**객실료 50% 할인 7만원**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가능**

객실예약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롯데타워) | www.hotelarthall.co.kr

## 古家 고향의 맛- 정통 고가약오리탕

**진정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엄선된 약재와 까다로운 재료 선별로 최고의 맛과 건강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모든 조리과정에 청결함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오리탕**

예약문의 **062)226-8254**